

## <김해관 위원장 담화문>

### **2018년 단체교섭은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일궈낸 값진 결실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2018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는 조합원 총회가 31일 개최됩니다.

노동조합은 광화문사옥에서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조합 간부 총력투쟁을 힘차게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의 최고 경영진과 9대 요구안을 놓고 공방과 진통을 거듭했습니다. 의안 하나하나가 생존권적 요구를 담은 것이고, 조합원들의 기대와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기에,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배수진을 치고 협상에 임했습니다. 이튿날 새벽녘에 극적 타결을 이뤄내고, 당일 개최한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에 서명을 하고 나니 많은 감회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께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맙습니다”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믿고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것이 고맙고, 흔들림 없이 강력한 총력투쟁에 나서주신 조합 간부들이 고맙고, 무엇보다 제가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돌이켜보면 2018년 단체교섭 모든 과정과 그 결과는 조합원과 함께 일궈낸 값진 결실이라는데 큰 자긍심을 갖게 합니다. 저는 13대 집행부 출범초부터 조합원께 약속드린 5대 핵심공약을 뺏속 깊이 새겼습니다. 특히 “대학학자금 부활, 임금피크제 개선 등은 어떤 일이 있어도 쟁취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전국의 현장의 조합원들을 찾아다니며 말씀을 들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9대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KT가 처한 상황과 노사관계의 역관계속에서 정확한 정세분석과 쟁취할 수 있는 최대수준의 목표와 전략 전술을 수립했습니다. 올해 단체교섭은 사측의 지연전술대로 하반기에 하는 일상적 교섭이 아니라, 상반기에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실천 행동에 옮겼습니다.

4월18일 제1차 교섭을 앞둔 출정식에서 저는 "2018년 단체교섭은 처음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끝도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분당사옥에서 선도투쟁에 나선 400여 조합 간부 뒤에는 1만8천여 조합원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9차례의 실무교섭과 4차례의 본교섭 테이블에서 사측은 완강한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2018년 단체교섭은 예년처럼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순식간에 돌파한 것은 조합 간부 총력투쟁과 조합원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물론 투쟁과정과 교섭결과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고, 조합원들이 처한 조건에 따라 아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투쟁과 협상력이 극대화되는 시점과 환경은 여러 차례 오는 것이 아니기에, 전략적 판단으로 합의안을 타결지었습니다. 하반기 노사협의회와 내년 단체교섭에서 더욱 철저하게 요구안을 쟁취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광화문사옥 총력투쟁에 동참한 조합 간부들의 뜻을 물었습니다. 400여 조합 간부들이 흔쾌히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5차 본교섭에서 잠정 합의를 했고, 이제 조합원 여러분의 찬반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합의안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지만 각 지방본부와 지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앞으로도 조합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항상 함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존경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30일

KT노동조합 위원장 김해관